

제주문화예술도시 발전을 위한“관용”인식수준 연구

현미경¹, 황경수^{2*}, 김경범²

¹제주대학교 행정학과, ²제주대학교 행정학과 &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A study on the perception level of "Tolerance"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 city in Jeju

Mi-Kyung Hyun¹, Kyung-Soo Hwang^{2*} and Kyung-Bum Mim²

¹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²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Researcher of Institute for Social Science Research, Jeju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논문은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하여 지역의 가치를 “관용”에 두고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로의 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다양함을 받아들이는 근거가 되는 ‘관용’을 문화예술분야에 적용하여 제주지역주민의 관용 수준을 확인하고자 제주지역 15세 이상의 주민을 대상으로 445명에게 설문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성 수준은 성(sex)과 연령, 학력, 문화활동 여부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각기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다. 문화예술의 사회적 편익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배제를 개선하는 잠재력을 가지며 관용의 도시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행정의 책임성에 “관용”이 가지는 공공선을 통해 사회적 가치에 비중을 두어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더불어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d on “tolerance” to provid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as a city of culture and art in Jeju. In the field of culture and art, the survey was conducted to measure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diversity of in Jeju residents. Analysis of Jeju residents, the degree of tolerance for acceptance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of degree, depending on whether the gender (sex) and age, education, and cultural activities. As a result, analysis of the acceptance degree of the tolerance of Jeju residents,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re are some difference of more or less according to the difference in gender (sex), age, education level, and the degree of cultural activities.

To emphasize the social benefits of culture and arts have the potential to improve social exclusion. Therefore, there will be a space for anyone to recognize and respect the diversity of individuals and social integration.

Composition of the city of culture and art with a focus on the social value of generosity and, if you promote regional development, the residents quality of life will improve.

Key Words : Culture, Cultural and art city, Tolerance, Diversity, Regional development

1. 서론

문화는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되는 문화적 독특함을 배경으로 구별되는 차별성을 가진다. 지역의 독특함은 문화

예술을 통한 창조성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지역만의 특별성을 나타내고 그 인식의 확장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한다. 대한상공회의소의 보도자료[1]에 따르면 기업의 82%가 한류확산으로 한국과 제품에 대한 우호적 이미지

*Corresponding Author : Kyung-Soo Hwang(Jeju National Univ.)

Tel: +82-64-754-2971 email: kshwang@jejunu.ac.kr

Received July 8, 2013 Revised (1st August 20, 2013, 2nd August 27, 2013, 3rd August 28, 2013) Accepted October 10, 2013

가 높아졌으며 문화(86.7%), 관광(85.7%), 유통(70.5%) 등 기업매출 상승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문화의 세계화에 따른 인식의 확산은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문화는 예술적 교류를 통해 발전하고 성장한다. 지역에 공존하는 다양한 문화를 예술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경제도 더불어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가 공간을 제공하는 역할에서 머물지 않고 인간의 창조적 잠재력을 일깨울 수 있는 역할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관용”을 전제로 하는 개방적인 문화가 필요하다. 문화의 차이는 다름을 받아들이는 “관용”을 필요로 한다. “관용”은 다름의 차이를 수용하여 삶의 여유와 자유를 제공한다. 그러므로 ‘문화예술도시’는 “관용”을 바탕으로 하는 창조적 시민공간으로 제시될 수 있다. 사회통합을 위한 행정의 책임성에 “관용”이 가지는 공공선을 사회가치에 비중을 두고 제주를 문화예술도시로 발전시켜 나간다면 지역의 발전과 함께 주민 삶의 질도 높아질 것이다.

본 연구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결과제는 ‘다름’이 아닌 ‘다양함’을 인정하는 근거가 되는 “관용”이라 파악하였다. 지역의 가치가 되는 “관용”을 예술분야에 적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문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수준을 확인하고자 한다.

1.1 문화예술도시의 정의

문화예술도시는 ‘창조도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연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논지는 영국의 경우 문화예술산업을 창조산업(Creative Industry)이라고 표현하면서 비롯되었다. 한계역[2]은 문화가 사회를 사회답게 만들어 주는 가장 본질적이고 근본적이며 중추적인 것으로 상호이해와 공감을 원천으로 인간적 연대감을 이어주는 시간과 공간의 힘을 지닌다고 하였다. 문화적 시각은 인간에게 예술적 삶을 살게 하고 서로 교감하게 하여 상호이해의 폭을 넓히고 교류를 확장시켜 도시경제의 새로운 고용과 부를 창출한다.

문화예술도시는 다양하게 해석되고 제시된다. 김석태·서준교[3]는 문화예술도시가 창조계급을 중심으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여 인간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정신적 중심점 역할을 담당한다고 하였다. 랜드리[4]는 문화예술도시의 기능적 측면에서 예술과 문화가 지닌 창조적인 힘에 착안하여 자유로움 속에서 창조적인 문화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도시라고 하였다. 사사키 마사유키 외[5]는 문화예술도시에 대하여 독자적인 예술문화를 육성할 수 있

는 능력을 갖춘 도시로써, 시민의 활발한 창조활동을 통해 첨단 예술과 풍요로운 생활문화를 키우는 도시, 혁신적인 산업을 일으키는 ‘창조의 장’이 풍부한 도시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문화예술도시’는 “관용”을 바탕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인정하는 사회통합의 공간으로써 제시하였다. 즉,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의 분위기 조성 및 창조적 역량의 확대로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며 자유로운 문화활동을 영위하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이다.

1.2 관용에 대한 정의

“관용”은 보통 강자의 입장에서 약자에게 베풀어지는 호혜적 수준의 관점에서 사용된다. 프랑스어인 “Tolerance(관용)”은 bear(참다), endure(견디다)라는 의미의 라틴어 동사 ‘tolero’의 현재분사 ‘tolerans’에서 파생한 ‘tolerantia’에서 유래되었다 [24]. “Tolerance”의 시작은 16세기 종교적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체념적 수용’의 의미 [25] 로써 사회적 분란을 해소하고, 공동체의 이익을 위한 수단인 타협 정도의 수준으로 제시되었다.

현재는 “관용”이 문화충돌로 표현되는 문화갈등상황 [26] 에서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부여하며 발전되었으며, 지금에 와서는 도덕적 당위성을 가진 종교적 이념으로 승화되었다. 또한 다문화 사회에서의 공존을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분야의 영역에서 해석되며 활용되고 있다. “관용”에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Table 1] “Tolerance” perspective of areas

Field	Perspective on tolerance
Philosoph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ragmatism: The strategic value of a pluralistic society • Liberalism: The presence of all people with equality and autonomy • Enlightenment : Provide a clue to accommodate the diversity of religion, culture, race
Multiculturalism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K Cowan[6]: Should begin within a liberal political framework that guarantees personal freedom and autonomy. • So, B.C.[7]: We are human beings with the same rights and should be recognized as being at the same time with the other differences. • Lee, S.A.[8]: The efforts of both sides, the people of accepting and accepted is required. • Choi, B.D.[9]: Acknowledge the differences and provides a clue for the symbiosis. •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10]: Contribute to making the practice of tolerance, mature civil society. Policy, philosophy, and

	<p>expand the area of human rights and cultural differences in the recognition of and communication, and create a more equitable and harmonious community.</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Yang, S.T.[11]: Apart from the identity of ethnic nationalism can not exist.
Politic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ang, S.C.[12]: Does not have a uniform way of thinking • Lee, Y.J.[13]: Lead to political practice, and to create a new space for coexistence is a powerful alternative. • Lee, S.A.[14]: Authoritative command, without interference by the interference and the will to act, what about what is acceptable and at the same time strongly opposed. And the diversity of national policy is to allow. • Jo, J.M. et al[15]: Towards an open society is a matter of attitude.
Administr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Ko, C.H. et al[16]: One of the virtues of bureaucracy to have the will to respect the opinions of subordinat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eliefs and attitudes that support people • Fear comes from ignorance and the desire for self-preservation
Kang, S.C.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ace, sex, religion
Jo, J.M. et al[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inners, losers, sex, age, ideology, education level, income level
Yoon, S.W. et al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ocial values: political affiliation, globalization, recognition, national consciousness, the Confucian values

본 연구의 목표는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을 확장해 나가기 위하여 사적영역인 지역주민의 “관용”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사적영역에서의 불관용 되는 변수와 그 요인들을 중심으로 하여 확인하였다.

위와 같은 연구를 통해 불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종족, 성별, 나이, 비만, 키, 신체적 결함, 역사, 문화적 조건, 교육환경, 직업과 수입 등을 도출할 수 있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관용”을 실천하는 일에는 인내, 참을성, 자비, 너그러움, 수용, 배려, 정의실현, 올바른 방향성의 제시 등의 덕목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관용”은 강자가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의 수용을 넘어, 서로 다른 선호나 관계를 가진 개인 또는 집단이 그것을 표현하고 실현하려는 자유로운 행동에 대하여 금지하지 않고 인정하는 존중의 자세이다. 그러므로 “관용”은 서로 다름을 인정함으로써 차별하지 않으며 사람을 정해진 틀에 끼워 맞추지 않는 것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족과 인간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1.2.1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에 따라 그 요소가 다르다. 고창훈·김진호[16]는 공적인 영역에서의 “관용”을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법률적 영역, 행정적 영역 네 가지로 분류하며 사적영역에서의 관용수준 확장이 공적영역의 관용수준을 증가시킨다고 하였다.

[Table 2] Variables Affecting the “Tolerance”

Researchers	Variables Affecting the “Tolerance”
Kim, Y.H. [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iolog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race, gender, age, degree of obesity, height, physical defects • Social characteristics: history, cultural conditions, and educational environment, occupation and income, residence, etc.

2. 연구방법

2.1 연구의 대상

본 연구는 제주지역주민을 대상으로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러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만15세 이상의 도민으로 설정하였으며 그 범주는 없다. 표본수는 연령별로 비례하여 무작위 표본추출을 전체로 진행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12년 시점이며 조사기간은 4월1일부터 5월 10일까지이다.

2.2 연구의 가설 설정

제주지역주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설을 설정하면서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수준은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수준이 높을 것이라 판단하였다. 이에 대하여 ‘(가설1)남성보다 여성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2)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3)학력이 높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 ‘(가설4)예술과 관련된 취미생활을 하는 사람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는 높을 것이다.’라는 네 가지의 가설을 설정하여 설문항목을 구성하였다.

2.3 설문항목의 선정과정과 방법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관용”에 대한 설문은 플로리다 교수[27]의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플로리다 교수는 관용의 개념을 문화예술적이기 보다는 사회문화적 측면이 강한 개념으로 논의하였다. 플로리다는 도시를 발전시키기 위한 매개체로서 문화를 강조하며 창조적 인재를 유인하고 창조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여 지역의 역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다양성에 대한 개방성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개방성과 다양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문화를 보급하기 위한 시설도 중요하지만 게이나 보헤미안과 같은 문화를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창조적 인재들이 진보적인 환경과 문화예술 및 야의 활동을 즐기길 바란다는 연구내용에서 착안하여 관용에 대한 개념의 정리와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적용과 평가에서부터 시작하였다. 그러므로 이러한 개념을 공연예술분야로 한정하였고, 공간적으로는 제주지역으로 한정하여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은 더욱 어려웠다. 선행연구의 부족과 시간적, 공간적,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지향점이 다른 측면 등 여러가지가 연구를 어렵게 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한 관용의 개념은 고창훈과 김진호 교수 등에 의하여 정치적 영역, 사회문화적 영역, 법률적 영역, 행정적 영역 등 네 가지로 분류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사적 영역에서의 관용수준 향상이 공적 영역의 관용수준을 증가시킨다는 논리로 확장되었다. 본 연구의 설문구성이 쉽지 않았으나 플로리다 교수의 개념을 시작으로 고창훈 교수 등과 새로운 문화예술행정 등을 공부한 신인 세력들과 함께 논의하며 구성하였다. 델타이나 명목적 (nominal group group) 집단 법 등을 활용하여 논문을 구성해야 하지만 전문가들의 협의와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문화예술행정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중복되지 않게 유형화하면서 설문을 구성하였다. 본 설문은 선행연구가 많지 않은 선행적 연구로서 사실상 어려움이 있었으나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하여 귀납적으로 설문을 구성하였으며, 요인분석 등을 통하여 설문항목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노력하였다.

2.4 설문항목의 구성과 기본사항

설문의 항목을 구성함에 있어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관용’의 인식수준을 도출해 낼 수 있는 연구는 찾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을 지표설정부터 분석까지 진행함으로써 가설검증과 영향요인을 찾아 분석하고자 하였다.

설문은 크게 5개의 카테고리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1)이다. 인식(1)은 총 3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이는 다시 예술인과 예술단체에 대한 인식(6문항), 예술활동에 대한 수용성 여부(30문항)로 구성하였으며, 인식측면에서는 직업으로써의 수용, 예술학교 진학(예술고, 국악고), 정치활동, 선거 출마, 예술인에 대한 개방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예술활동에 대한 수용성 여부에 대하여는 미술인(그림), 음악인(악기)(합창), 연극인, 국악인의 주거지 및 직장주변에서의 연습 및 공연활동에 대한 수용 인식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를 6개의 문항(총3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두 번째,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2)이다. 인식(2)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미술(그림), 음악(악기)(합창), 연극, 국악분야의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의 정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세부내역으로 부정적 인식에 따른 호칭(광대, 탄따라, 환쟁이 등)에 대한 인식, 예술인의 지식수준, 예술인 단체건물 입주, 경제수준에 대한 인식(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세 번째, 문화활동의 참여도에 대한 설문이다. 이는 조상희[19]와 박한병[20]의 연구를 본 내용에 맞게 문구를 수정하여 모두6개의 문항을 인용하였다. 세부내역으로는 참여활동, 함께하는 사람, 활동 횟수, 참여 이유, 하고 싶은 활동, 활동의 중요이유에 대하여 설문하였다. 네 번째, 삶의 만족감에 대한 설문이다. 이는 신조황[21], 조상희[19], 박한병[20], 임점주[22]의 연구에서 6개의 문항을 선별하여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삶의 만족, 행복도, 생활수준 만족, 여가활동의 여유, 주변인과의 친밀도, 사회구성원으로써의 만족감, 다시 태어났을 때 현재의 삶에 대한 선택에 대하여 Likert 7점 척도로 제시하였다. 다섯 번째는 기본적인 사항으로 성별, 연령, 거주지역, 학력과 소득, 직업과 친인척 가운데 예술관련직업 유무에 대한 내용으로 모두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2.5 연구의 처치

제주지역주민에 대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인식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관용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설문의 구성변수로 설정하여 가설을 제시하였다. 둘째,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하여 설문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어 불관용의 표현으로 “음악 하는 사람은 ‘탄따라’라고 한다.”, “미술 하는 사람은 ‘환쟁이’라고 한다.” 등의 내용을 수집하고 체계화하여 관용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적극 수용’ 7점에서부터 ‘수용불가’ 1점까지 Likert 7점 척도로 구성할 것이다. 셋째, 구성된 설문지를 배포하여 수집한 설문지는 코딩작업을 거쳐 넷째, 개념의 정확도를 파악하기 위한 요인분석과 신뢰도 분석을 통하여 타당성을 검정한 후, 다섯째, 코딩된 설문

지를 통해 집단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와 Anova를 통해 차이분석을 하고자 한다.

3. 연구결과

3.1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설문항목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은 문화예술과 예술인에 대한 인식(1), (2)에 대하여 실시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여부를 나타내는 Bartlett의 구형성 검증에서 나타난 유의수준은 $p < 0.5$ 이며, 분석된 Kaiser-Meyer-Olkin(KMO) 측도는 0.92이다. 측정변수는 척도 순화과정을 통하여 인식(2)설문에서 예술인에 대한 부정적 호칭에 대한 인식수준(5문항)이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와 제거하였다.

요인분석은 주성분분석을 사용하였으며 요인적재치 0.4이상, 고유값 “1”이상으로 제시하였으며, 요인 적재치의 단순화를 위하여 베리맥스(varimax)를 채택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한 요인별 신뢰도는 Cronbach α 값이 요인1) 0.96점, 요인2)는 0.95점, 요인3) 0.95점, 요인4) 0.93점, 요인5) 0.91점, 요인6) 0.94점, 요인7) 0.91점이다. 여기서 ‘미술단체 입주지 전세가격 하락’에 대한 항목 삭제 시 α 값이 0.92이므로 1개의 문항을 제거하여 사용하였으며 제거시 요인8)의 α 값은 0.90점, 요인9)는 0.85점이다. 요인9)에서도 ‘예술인의 개방성’에 대한 설문 항목을 삭제하였을 경우 α 값이 0.92점이므로 문항을 제거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3.2 사례분석

3.2.1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의 차이검증

성별에 따른(가설1)은 예술인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예술인의 경제력에 대한 인지수준(t 값 -2.53 , $p=0.012$), 예술단체에 공간을 임대하는 것(t 값 -2.19 , $p=0.017$), 자녀가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t 값 -2.40 , $p=0.017$)으로 t 값은 ± 1.96 보다 크며, 유의수준이 $p < 0.05$ 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 따른 (가설2)의 결과는 예술인에 대한 경제력의 인지수준, 생활밀접지역에서의 활동, 야외에서의 활동, 공연활동, 예술인의 지식수준에 대한 인지정도, 예술단체 공간 임대, 예술인으로서의 진로 수용, 예술인의 정치활동에 대한 설문에서 t 값 ± 1.96 이상, 유의수준 $p < 0.05$ 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3] Factor & Reliability analysis

Factor	content	Factor analysis				Reliability	
		Loading Value	Communality	Eigen Value	Variance Explanation Power	When remove item α Value	Cronbach α
1	Starve when play.	.89	.84	9.33	15.29	.96	.96
	Starve when traditional music.	.89	.82			.96	
	Traditional musicians are poor.	.87	.79			.96	
	Starve when music.	.87	.83			.96	
	theaters are poor.	.86	.79			.96	
	Starve when play a musical instrument	.86	.81			.96	
	Instrumentalists are poor.	.85	.80			.96	
	Singers are poor	.85	.80			.96	
	Starve when art	.81	.73			.96	
Artists are poor	.79	.70	.96				
2	Chorus practice near work	.84	.80	6.81	11.17	.94	.95
	traditional music practice near work	.84	.81			.94	
	Chorus practice in a residential area	.83	.80			.94	
	Traditional music practice in a residential area	.81	.81			.94	
	Musical practice in a residential area	.80	.74			.94	
	Instruments Praticce near work	.79	.75			.94	
	Theater practice near work	.74	.72			.94	
	Theater practice in a residential area	.72	.69			.94	
3	Outdoor theater	.84	.84	6.30	10.33	.94	.95
	Outdoor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81	.77			.94	
	Outdoor Choral Performance	.79	.79			.94	
	Outdoor Instruments Performance	.78	.77			.94	
	Outdoor Theater practice	.77	.77			.94	
	Outdoor Traditional music practice	.76	.75			.94	
	Outdoor Chorus practice	.76	.78			.94	
Outdoor Instruments practice	.69	.72	.94				
4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in a residential area	.79	.74	5.46	8.96	.92	.93
	Theater in a residential area	.75	.73			.92	
	Choral Performance in a residential area	.75	.72			.92	
	Traditional Music Performance near work	.74	.70			.92	
	Musical Performance in a residential area	.74	.73			.92	
	Choral Performance near work	.67	.69			.92	
	Theater near work	.66	.70			.92	
Musical Performance near work	.64	.66	.92				

5	Figure Display near work	.81	.79	5.38	8.83	.90	.91
	Outdoor Figure Practice	.78	.77			.91	
	Figure Display in a residential area	.78	.80			.89	
	Figure Practice near work	.78	.69			.89	
	Outdoor Figure Display	.71	.74			.89	
	Figure Practice in a residential area	.66	.65			.90	
6	Theaters have little knowledge.	.85	.86	4.28	7.03	.94	.94
	Instrumentalists have little knowledge.	.85	.86			.92	
	Traditional musicians have little knowledge.	.84	.84			.93	
	Singers have little knowledge.	.83	.84			.93	
	Artists have little knowledge.	.75	.74			.93	
7	Fall building reatal fee due to move in Performance groups	.78	.84	3.87	6.35	.92	.91
	Fall building reatal fee due to move in Choral groups	.75	.83			.89	
	Fall building reatal fee due to move in Theater groups	.69	.81			.88	
	Fall building reatal fee due to move in Traditional Music groups	.64	.75			.88	
	Fall building reatal fee due to move in Art groups	.57	.60			.90	
8	If your children go to art school,	.83	.90	3.28	5.38	.89	.90
	If your children go to Traditional Music school,	.80	.80			.80	
	When youy children are Professional artists,	.79	.79			.89	
9	If artists ran for election,	.89	.90	2.05	3.37	.70	.85
	If the artist engage in politics,	.85	.89			.71	
	Artist are open-minded	.54	.57			.92	

학력에 따른 (가설3)에 대하여는 생활밀접지역에서의 공연활동에 대한 관용성을 제외한 예술인의 경제력 인지 수준, 야외에서의 활동, 공연활동, 예술인의 지식수준인지, 예술단체 공간임대, 예술인으로서의 진로설정 수용에 대하여 t 값 ± 1.96 보다 크며,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에 따른 관용의 정도는 고학력일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이 높았으며 학력이 낮을수록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의 수준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예술과 관련된 취미생활에 대한 (가설4)에 대하여는 t 값은 ± 1.96 보다 크며, 유의수준이 $p < 0.05$ 로 모든 항목에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2.2 문화활동에 따른 생활만족감 차이검증

문화활동의 유·무에 따른 생활만족감을 알아보기 위한 설문문을 통해 t -test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문화활동을 하는 경우와 하지 않는 경우에 따른 생활만족감이 t 값 3.268로 ± 1.96 보다 크고 유의수준 $p < 0.05$ 수준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문화예술 활동이 삶의 활력과 적극적 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써 삶의 만족도를 향상시킨다는 현우현[23]의 연구와 의견을 같이할 수 있다. 역으로 제시하면 지역주민의 생활만족감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활동이 보편화되어야 한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검증을 통해 나타난 특이한 사항은 여성에게서 가족과 함께 문화활동을 한다는 답변이 많았다는 점이다, 이는 가족간의 유대와 아동과의 정서적 교육적 측면을 고려한 활동이 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의 접촉빈도를 높인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함께하는 문화예술활동은 가족 상호간의 동기부여는 물론 활동의 긍정적 참여를 유도하여 가족간의 소통과 더불어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제주가 문화예술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선결과제는 ‘다름’이 아닌 ‘다양함’을 인정하는 ‘관용’이라 파악하였다. 문화예술도시는 문화예술의 분위기가 가득한 도시로써 창조적 역량을 통해 지역의 발전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예술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창조적 시민공간이다, “관용”은 장소와 기술과 인재를 동원하고 유인할 수 있게 만드는 핵심적 요소로써 서로 다른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인식하여 문화예술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발전과 시민의 품격을 높이는 매개체로써 문화를 즐기고 예술인들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공적영역인 제주의 관용수준 확장을 위해서는 사적영역인 지역주민에 대한 “관용”인식의 확장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적영역의 확장을 위하여 지역의 가치가 되는 “관용”을 예술분야에 적용하여 지역주민에게 설문함으로써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지역주민의 “관용”에 대한 인식수준을 확인하였다.

연구를 통하여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낮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문화활동을 하는 사람이 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관용의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 경우 문화활동을 가족과 함께 한다는 답변이 많았

데, 이는 아동에 대한 교육적 차원에서 이루어진 동기가 활동의 계기가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문화예술활동의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방법적으로 ‘문화활동을 가족과 함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가족간의 유대는 물론 아동과의 정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아주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접근성과 다양성을 증가시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과 관용의 수준도 함께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의 제시와 보편화는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의 확대와 더불어 ‘관용’의 수준 또한 향상시킬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제주가 관용성 확장을 통한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창의적 활동의 확대를 통한 지역의 분위기 조성. 둘째, 문화예술활동의 보편성, 셋째, 창조적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넷째, 정책적으로 활동공간이 없어 문화예술 활동 유지에 어려움을 느끼는 예술인을 위한 빈공간의 수용과 임대를 통한 지속적인 작업 공간을 마련 방안이다.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제주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을 산업과 환경정책을 연계시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관용”의 출발이 되는 소통과 협력의 자세는 문화예술에 대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정부와 지역주민, 그리고 경제인이 서로 관용하고 협력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에 대한 제주지역의 관용수준을 확인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인식과 활동차원의 수준에서 이루어져 관용성이 미치는 인과관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공적영역에서의 관용성 확장은 지역민들이 갖고 있는 관용수준과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하겠다. 그러한 차원에서 공적영역에서의 관용성을 확인해 볼 필요성도 제시된다. 또한 문화예술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제주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비전을 설정하여 문화예술을 산업과 환경정책에 연계시켜 지역의 경제정책 전반에 반영하는 방안을 확인해볼 필요성도 존재한다. 이와 같이 문화예술에 대한 관용성 확장을 위해서는 복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References

[1]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Press Releases, March, 2012.

[2] Han, S. W., “Critical reflection on the creative city discussion based on Social Public Service model.”,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 1, pp.1-15, 2011.

[3] Kim, S. T;Seo, J .K., “The culture budget of the local government impact on local culture Index ,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s, Vol.7, No.3, pp:338-359, 2003

[4] Charles Landry, Creative City, pp.1-299, November, 2008.

[5] S. Masayouki: National Institute for Research Advancement, The View towards the creative city, pp.1-335, March, 2010.

[6] J. K Cowan, "Culture and Rights after Culture and Rights", American Anthropologist, 108, 1, pp.9-24, 2006. DOI: <http://dx.doi.org/10.1525/aa.2006.108.1.9>

[7] So, Byung-chul, "Tolerance, Justice, and Human Rights: A Justification of Liberal Multiculturalism", Democracy and human rights . The May 18 Institute of Democracy and Human Rights. Vol.10, No. 3, pp.137-161, December, 2010.

[8] Lee, Su-An, “Theoretical Research on the Otherness of Female Migrants and Interaction of Tolerance : with the Case Study of Korean Female Migrants in Germany”, The Society and Theory, Vol. 1, No.12, pp.73-107.

[9] Choi, Byung-Doo, “The Socio-spatial Transformation Process Towards Multicultural Society and Limitations of 'Multicultural Coexistence' Policy of Japan”, The Journal of The Korean Association Regional Geographers, Vol. 17, No. 1, pp.17-39, 2011.

[10] Korean Woman’s Development Institute, “Multi-ethnic, multi-cultural society and the progress in the aspects of the process of overcoming social conflict : The case of Australia and Japan”, 2007.

[11] Yang, Seung-Tae, “Tolerance, Difference and Identity, National Identity, and the 21st Century Korean Nationalism”, The Korean review of political thought, Vol. 13 No.1, pp.53-77. 2007.

[12] Kang S.C., “A Study on tolerance as Mental conditions of democracy”, The Journal of The Korean Ethics studies Association, Vol. 31, pp.175-192, 1992.

[13] Lee, Young-Jae, "How to Understand the Tolerance: On Constructive Tolerance and Integrative Tolerance", The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Vol. 18, No. 2, pp.1-6, 2011.

[14] Lee, Su-An, “Mutual Tolerance and Mutual Caring as the Social Values for Sustainable Community”,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 Sociology of Culture, Vol. 7, pp.87-114, 2009.

- [15] Jo, J.M-Yoon, J.B, -Ka, S.J.- Yoo, S.J., "The Perception Gap on Political Tolerance between the Winner and the Loser and Its Effects", Korean Politics Studies, Vol. 20, No. 2, 2011.
- [16] Ko, C.H-Kim, J.H., "Democratization of local government : The context and strategies of tolerance based on The case of Jeju Island", Th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for Public Administration Vol. 28, No. 4, pp.1301-1323, 1994.
- [17] Kim, Y. H., "The Ethics of Tolerance: Philosophical Foundations and Applicable Aspects of Tolerance", The Journal of Korean Philosophical Association, Vol. 87, pp.65-90, 2006.
- [18] Yoon, S. W-Kim, S. D., "An Empirical Analysis of Multi-cultural Acceptability in Korea: Focusing on the Effects of 'Social Values'", Journal of Social Science, Vol.36, No.1, pp.91-117, 2010.
- [19] Jo, S.H.,, "A Study on the Effect of the Participation of the Aged at the Leisure to the Social Network and the Psychological Wellbeing", A doctoral dissertation of Hanyoung theological University, 2011.
- [20] Kwak, H. P., "A model Study on Job Satisfaction and JOB Stress through Leisure Activity", A doctoral dissertation of Kyonggi University, 1996.
- [21] Shin, j. H., "The effect of senior citizens' participation in leisure activities on wellness and subjective happiness", A doctoral dissertation of Kyungsung University, 2010.
- [22] Im, j, j., "Effect on Life Satisfaction of Behavior of Leisure and Self-Control in th Elderly", A doctoral dissertation of Daegu University, 2010.
- [23] Hyun, W.H., "The actual conditions analysis for performance art cultural life of seniors who live in Pohang", A paper of master's degree, Yeungnam University, 2009.
- [24] Jo. S.S., "Tolérance or Tolerance, Virtue and evil-To apply the correct in Korea", Person and Idea, vol.11(19), pp.53-63, 1999.
- [25] Young Jae Lee., "How to Understand the Tolerance: On comstructive Tolerance and Integrative Tolerance", The Journal of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iation, vol.18(2), pp.1-24, 2010.
- [26] Samuel P. Huntington., "The Clash of Civilizations", Gimmyoung Publishers, November, 2011.
- [27] Richard Florida., "Cities and the Creative Class", Purungil. pp. 1-229. August, 2008.
- [28] Note: This study Master's Thesis 2012 (A Study on the perception level of tolerance for the development of

cultural and art city in Jeju) is a summary and excerpt.

현 미 경(MI-Kyung Hyun)

[정회원]



- 2012년 8월 : 제주대학교 (행정학석사)

<관심분야>
문화행정, 복지행정

황 경 수(Kyung-Soo Hwang)

[정회원]



- 1997년 2월 : 서울시립대학교 (교통공학박사)
- 1998년 8월 ~ 2000년 8월 : 제주발전연구원
- 2004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문화행정

김 경 범(Kyung-Bum Kim)

[정회원]



- 2004년 8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석사)
- 2012년 2월 : 제주대학교 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박사)
- 2013년 11월 ~ 현재 :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
- 2013년 8월 ~ 현재 :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강사

<관심분야>
교통행정, 도시행정, 지방행정